

수입주류 ‘가격 폭리’ 최대 9배나 비싸

주부교실중앙회 조사…레드와인 8.9배·화이트와인 5.9배·맥주 3.4배

수입주류 가격이 수입원가보다 최대 9배나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수입 와인 및 맥주의 국내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주종별로 레드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원가에 비해 8.9배, 화

이트와인은 5.9배, 맥주는 3.4배나 수입원가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EU, 미국, 칠레산 와인은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됐다. 맥주의 경우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올해 기준으로 EU산 맥주는 과세가격의 15.0%, 미국산 맥주는 17.1%로 각각 인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레드와인 1병(750mL) 평균가는 6만8458원으로 수입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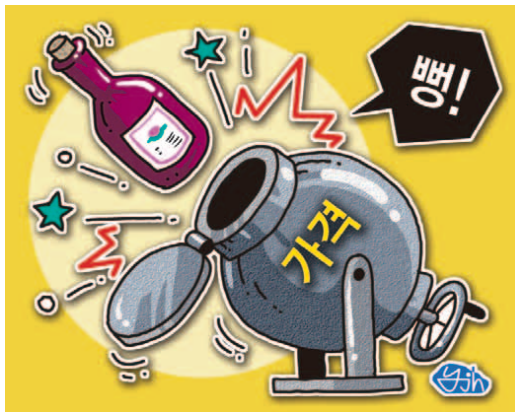
보다 8.9배나 비쌌다. 화이트와인 1병(750mL) 평균가는 5.9배 비싼 5만3988원, 맥주 1병(330mL) 평균가는 3.4배 비싼 2717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국내외(국내 54곳, 해외 22곳) 유통채널(백화점 24곳, 대형할인마트 31곳, 전문판매점 12곳, 해외 온라인사이트 9곳 등) 총 76곳에서 총 2268개(레드와인 1316개, 화

이트와인 455개, 맥주 497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입주류의 유통구조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연결된다. 주부교실중앙회는 중간도매상보다는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안 입은 것처럼… 신지 않은 것처럼…

재킷·워킹화 “가벼움과의 전쟁”

아웃도어 ‘조경량 제품’ 출시 붐물

블랙야크 ‘워너비재킷’ 조경량 소재로 감량 네파 ‘뉴오보·벤트’ 기하학적 디자인 눈길 노스페이스 ‘DYF 6F’ 에어볼로 충격 흡수 센터폴 ‘라이트3’ 무봉제 공법으로 무게 ↓

록그룹 부활의 리더 겸 기타리스트이자 방송인 김태원은 누군가 기타를 선물하거나 제작을 해주고 싶으니 어떤 스타일을 원하느냐고 하면 “무조건 가벼운 것”이라고 답한다고 한다. 아무리 소리가 좋고 기능이 뛰어나도 무거운 것은 사양이라는 얘기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올 봄 ‘가벼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품들의 디자인과 기능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평준화되면서 ‘얼마나 가벼운가’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의 대표제품인 바람막이 재킷과 신발시장이 가장 치열한 무게경쟁을 벌이고 있다. 네파의 상품기획팀 박지훈 팀장은 “요즘 바람막이 재킷은 조경량 제품이 인기다. 고객들이 입지 않은 듯 가벼운 착용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킷뿐만 아니라 배낭, 워킹화 제품도 가벼운 제품이 강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량 재킷들은 더우면 벗어서 한 손에 말아 쥌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감과 작은 부피를 자랑한다. 슬림한 디자인을 강조해 입으면 몸매마저 ‘가벼워’ 보인다.

●77개 에어볼이 충격흡수·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어떤 옷과도 매치

‘워너비재킷(16만8000원)’은 블랙야크가 선보인 조경량 시리즈의 3도 배색형 재킷이다. 조경량 소재를 사용해 부피를 최소화했다. 백면 코팅이 되어 있어 피부에 닿았을 때 쾌적한 느낌을 준다. 블랙야크의 워킹화 ‘뮤온(15만9000원)’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아예 불필요한 패넌을 제거해 버렸다. 캐주얼 느낌의 데님소재를 사용한 라이프스타일의 워킹화다.

국내 아웃도어 1위 노스페이스는 일찌감치 조경량 등산화 선보이며 ‘경량전쟁’을 발발시킨 브랜드다. 올해 신제품인 ‘다이나믹 트레일 DYF 6F(14만원)’는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부위별 충격흡수 테크놀로지인 에어볼시스템을 적용한 조경량 트레일 러닝화다. 에어볼 시스템은 트레일 러닝시 체중의 6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발을 비롯해 발목, 무릎의 충격까지 고려한 충격흡수 시스템이다. 다양한 크기의 77개 에어볼을 비대칭으로 배치해 충격을 빨아들이도록 했다.

컬럼비아의 ‘소버 런 재킷(17만8000원)’은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격렬한 스포츠를 즐길 때 더욱 유용하다.

마운틴하드웨어의 ‘크로싱 윈드재킷(17만원)’은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세련된 경량 방풍재킷이다. 심플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스타일과도 매치가 잘 된다.

네파의 ‘뉴오보(남성용 17만9000원)’와 ‘벤트(여성용 17만9000원)’ 윈드재킷은 가벼우면서도 완벽하게 바람을 차단해준다. 자연에서 모티

브를 얻은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프린트가 눈길을 끈다.

●200g 워킹화·편안함 중독 ‘퀵레이스 장치’까지 프랑스 아웃도어브랜드 아이더는 가벼운 무게에 디자인까지 슬림한 조경량 워킹화 ‘비즐리’와 ‘듀오(이상 12만9000원)’를 출시했다. 아이더의 워킹화 라인인 ‘라이트워크’ 제품 중 조경량 시리즈에 속하는 제품들이다. 발 앞꿈치와 뒤꿈치 사이의 높이편차를 최소화한 조경량 중창을 사용했다. 덕분에 맨발로 걷는 듯한 ‘베어풋’ 효과를 느끼게 해준다.

K2의 조경량 워킹화 ‘라이트 다이얼(17만9000원)’은 20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철 워킹화로 딱이다. 조경량 바람막이 재킷 ‘에이스(13만9000원)’는 접고 패기가 간편한 패커블 시스템을 적용해 휴대하기가 편하다.

센터폴은 트레킹 전문 브랜드답게 무봉제 공법으로 조경량화를 실현한 트레킹화 ‘라이트 3(19만9000원)’를 내놔다. 가벼운 산행, 일상에서의 워킹라이프에 적합한 로우컷 등산화로 설계됐다. 도시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신세대 아웃도어족과도 잘 어울릴 듯.

‘센스프로(22만9000원)’는 살로몬아웃도어의 전문가 라인인 에스랩센스의 대중화 버전으로 나온 조경량 시티 트레일 러닝화다. 남성용 기준으로 한쪽이 250g에 불과하다. 봄철 산행과 러닝에 적합한 제품이다. 브랜드 측에서 “한 번 신어보면 중독성이 생길 정도로 편하다”라고 자랑하는 퀵레이스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전기차의 혁명 ‘BMW i3’ 시동

최대출력 170마력…완충시 132km 주행

BMW코리아가 2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BMW 최초의 순수 프리미엄 전기차 i3(사진)의 출시 행사를 열었다. ‘i’는 전기차를 출발점으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는 BMW의 새로운 서브 브랜드다. BMW i3는 ‘미래의 전기차’라 할만하다.

BMW는 전기자동차 i3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심었다. 차체 구조, 실내의 디자인은 물론 자동차 제작에 사용된 소재도 한 차원 앞서 있다.

우선 차체는 라이프드라이브(LifeDrive) 구조로 이뤄져 있다. 탑승공간인 ‘라이프 모듈’과 BMW e드라이브 등 구동력을 담당하는 ‘드라이

브 모듈’로 구성됐다. 이 덕분에 실내 공간은 기대 이상으로 넓다. 키 180cm의 성인이 앞좌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앉아도 뒷좌석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바디-온-프레임(단단한 프레임에 별도의 차체를 탑재하는 방식)과 유사한 이 구조는 넉넉한 실내공간과 뛰어난 주행성능은 물론 높은 수준의 안전성까지 누릴 수 있다.

BMW i3는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파워를 낸다. 시속 100km/h까지는 7.2초가 걸린다. 큰 차체를 지녔지만 첨단 소재의 사용으로 가능해졌다. 신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으로 차체를 제작해 경량화를 이뤘다. 공차 중량은 1300kg에 불과하다. 완전 충전상태에서 최고 132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도 혁명적이다. 천연 가죽과 원목, 양모, 그리고 재생 가능한 소재가 적절히 어우러져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물씬 풍긴다. 또 B 필러가 없는 라이프 모듈 설계 덕분에 넓은 개방감을 준다.

충전 인프라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3월 포스코 ICT와 함께 전기차 충전 멤버십 서비스를 구축하고 올해 안에 전국 이마트 60개 지점에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원성열 기자

르노삼성, 한층 더 세련된 ‘SM3 Neo’ 출시



르노삼성자동차는 유리퍼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팬의사양을 강화한 ‘SM3 Neo(사진)’를 24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QM3과 QM5에 적용했던 ‘모던 다이내믹스’ 디자인을 반영해 패밀리를 이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양쪽 헤드램프를 잇는 날렵한 전면 그릴과 정중앙에 위치한 로고다. 또 LED 주간 주행등과 크롬 베젤을 하단범퍼에 적용해 전면 디자인을 강화했다. 상품성 면에서는 LED 주간 주행등 및 포지셔닝 램프, 경사로 밀림방지장치(HSA), 전방 경보장치 등의 편의와 안전 사양을 탑재해 경쟁력을 높였다. ‘SM3 Neo’는 5개 트림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575만~1995만원.



“운전면허시험제도 강화하겠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화원연합회 2014정기총회가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결산 및 2014년도 예산승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발생증가와 국민안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총회에 참석한 경찰청 김수영 교통기획과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청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회원들은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모금을 하기로 결의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kine007

편진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식물생약성분 ‘프리페민정’ 하나면 가임기 여성 월경전증후군 고민 끝

■ 종근당, 생약전문회사 젤러서 수입

1일1회1정 간편복용으로 증상 완화 여성들 삶의 질 개선할 것으로 기대

많은 여성들이 적절한 처방 없이 무작정 참고 견뎌야했던 월경전증후군(PMS)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월경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40%가 겪고 있는 흔한 질환. 신체·감정적 증상과 행동 변화들이 월경 7~10일 전에 나타나 월경과 함께 사라졌다가 황체가 시작과 함께 다시 반복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대인관계와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는다. 경증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습관을 바꾸는 비약물적 치료를 하면 된다. 증상이 심할 경우엔 약물을 복용하거나 산부인과에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규명이나 치료방법이 없는데다 여성들 또한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아 대부분 참거나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그친다.

종근당이 최근 출시한 ‘프리페민정’은 월

경증후군 치료에 새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럽에서 월경전증후군과 월경불순에 대한 임상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으로, 스위스 생약전문회사 젤러가 생산하고 종근당이 수입한 일반의약품이다. 특히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에서 추출한 국내 최초 식물 생약 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월경전증후군 증상은 150여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신체적 증상은 유방통과 복부팽만, 두통, 근육통, 체중증가, 여드름, 사지부종, 변비, 피로감 등이 있다. 감정적 증상은 신경과민, 우울, 무기력감, 불안, 긴장, 외로움 등이 있으며, 행동 변화로는 집중력 저하, 식욕변화, 수면과다,

의욕저하, 불면 등이 나타난다. ‘프리페민정’은 1일1회, 1회1정의 간편 복용으로 월경 전 신체·정신적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종근당 관계자는 “프리페민정의 출시가 지금까지 치료와 관리에 소홀했던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